

제1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 6.22(월) ~ 6.26(금), 베이징, 서비스·투자·금융 3개 분야 협상 -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제15차 후속협상이 6.22(월)~26(금)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중국 측 린 핑(Lin Feng)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3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15년 발효)한 이후 서비스·투자 자유화 제고를 위해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18년 3월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14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양국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3월 개최된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도 후속협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 이어진 바, 금주 중 개최될 예정인 한-중 FTA 공동위원회 계기 통상장관 간 별도 면담을 통해서도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급 차원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긍정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협상 대표단은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야에서 협정문 합의와 시장개방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FTA 후속협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과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개선의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협정교섭관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44-203-5810)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담당자	사무관	진경희 (044-203-5819)